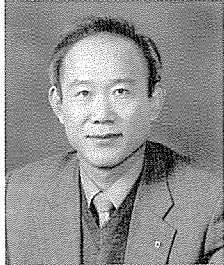




10월의 양봉관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상 균

월동군의 마지막 관리를 하는 시기이다.

월동식량을 지난 달까지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은 이달 초순경 끝마칠 수 있도록 하고 월동군세가 안 되는 봉군도 합군을 서둘러 끝내야 하겠다.

신왕 여유가 있는데 교체를 못했다든가 가을에 만든 신왕이 남아있을 경우 봄에 만든 신왕을 죽이고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이달 하순경에는 일 년 중 진드기 구제의 최적기가 되게 된다. 이달에 얼마나 잘 잡아 주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내년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게 된다. 또한 밀원수 씨앗 채취 하기도 좋은 계절이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달 말경에 밀원수 식재도 가능하므로 밀원수 식재에도 노력해야 하겠다.

1. 마지막 월동식량 공급

지난달에 기온이 높아 들깨나 물봉숭아에서 꿀이 들어오면서 늦게 까지 산란이 잘 나갔던 봉군은 이달 초중순에도 봉충이 많이 남아 있어 식량을 저장할 공간이 적은 봉군은 계상 이외에는 지난달까지 월동식량을 다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이달 중에 봉충 터져 나오는 것을 보

아서 서둘러 식량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제주도 서광이나 보성 등 녹차가 있는 지역과 가을 가스래기가 있는 지역이나 남해안 지역을 제외 하고는 이달 중에 산란과 육아를 많이 할수록 월동 군세는 오히려 약해지게 됨을 볼 수가 있다.

약군일수록 월동하는데 불안을 느껴 산란을 지속하게 되고 가을 신왕으로 교체한 봉군 또는 약군을 합군한 봉군도 산란이 오래 지속되게 됨을 볼 수가 있다. 올해는 늦더위가 계속되어 예년보다는 산란과 육아가 오래 지속 되었는데 이러한 해에는 식량을 너무 일찍 끝마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봉군은 뒷장에 공소비가 있게 되면 이곳으로 식량을 옮기고 계속 산란하게 되므로 차라리 공소비나 꿀 소비를 전부 빼내 주던가, 있더라도 신소비 한 장 정도만 남겨 놓도록 하는 것이 꿀을 옮기거나 저장할 공간이 적어서 식량을 주는 대로 봉충이 터져 나온 자리에 저장하게 되어 산란 할 공간을 주지 않게 된다.

이러한 봉군 일수록 소비마다 식량이 꺾차도록 주는 것이 산란과 육아를 막는 방법이 되겠다.

월동기간에 식량 부족으로 아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는 대개 갓장에 식량이 적어서 부분아사가 되는 경우이며 가

을에 도봉을 당했다든가 겨울철에 한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 식량이 부족하던가 많이 소모하게 되며 식량을 조금 적게 주었을 경우에도 전체가 굶어 죽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식량을 주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식량을 주면 광식사양기이건 자동사양기이건 바닥사양기이건 사양기 가까운 곳에 우선 많이 저장 하는 것이 별의 습성이다.

월동식량을 주다보면 가까운 곳의 소비가 봉개까지 충분히 하면서 식량이 다 차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제일 먼 곳의 소비는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의 소비 두 장을 그대로 뽑고 제일 먼 곳의 소비 두 장을 그대로 뽑아서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다시 넣어주고 마지막 사양을 1-2회 정도 주어 소비가 딱 차도록 하여 1/3정도 봉개가 들어가도록 해 주면 월동 식량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이 사양기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갈 것쪽의 소비가 봉개가 1/3정도 되어 있을 때 소비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것쪽은 기온이 낮아 봉개가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별이 균세가 약할 경우 제일 것장 소비 중 식량이 적은 소비를 축소하여 빼내서 월동식량을 적게 주는 것이 좋다.

식량을 적게 주면 월동별의 노쇠도 적어지고 사양비도 적게 들지만 이는 내년 봄에 다시 사양시켜야 되므로 마찬가지로 되게 된다.

오히려 10월과 11월에 것쪽에 있는 식량을 가운데로 이동시켜 겨울에 절량으로 아사되는 원인이 되게 되므로 식량은 착봉 소비

마다 일부 봉충이 조금 남아있는 부위 빼고는 전부 차도록 주는 것이 안전하다.

봉개는 소비마다 1/3정도 이상 하도록 하고 양 것쪽 소비가 봉개가 제일 많은 것을 놓아야 식량이동을 적게 하게 된다.

것쪽소비가 봉개를 좀 더 잘 하도록 하여 식량이동을 줄이려면 식량을 다 주기 전에 것쪽에 보온판을 대 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따뜻해야 식량도 가져다 잘 저장하고 봉개도 잘 하게 된다. 스티로폼 중에서 하이폴이라는 것이 별이 죽지를 않고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보온물로써는 매우 가치가 높게 된다.

스티로폼 종류는 햇볕에 노출되면 분해가 잘 되므로 사전에 수성 페인트로 앞뒤로 칠해서 쓰면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다.

보온판을 대주는 시기는 마지막 귀산란 받을 때가 좋은데 그 이전은 더워서 안 좋고 중부지방기준 9월 10일경이 적당하며 가끔 들깨꽃이 지기 전에 대어 주는 것이 좋다 이는 보온이 약간되면 육아면적이 별 숫자에 비하여 약간 넓어지게 되며 산란이 줄어들면서 어린 유충을 파내는 시기에 파내는 것을 줄여 약간의 보탬이 되게 되며 식량이동을 줄이고 봉개도 것쪽에 잘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 일석 3조의 효과가 있게 된다.

스티로폼 통은 이러한 보온되는 점이 있어 장점도 이때부터 발휘되어 월동과 봄별 기를 때까지 이어지게 되게 된다.

가지고 있는 스티로폼 통이 있다면 이때부터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식량을 다준 다음에는 뒷장에 저장되어 있는 식량소비 한 장 정도는 사양기 뒤에도 대 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계속 식량소비가

이루어 지다보니 식량이 적어지면 공간이 생겨 갯쪽에서 식량을 물어오는 습성이 있어 갯쪽 소비의 식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게 되는데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진드기 구제

봄과 가을이 진드기 구제의 적계 이지만 봄보다 가을이 오히려 더 적기가 되겠다.

봄 보다는 시간도 많고 약제 처리 할 수 있는 시기도 길기 때문이다.

중부 지방 기준으로 이 달 20일 전후로부터 말일까지가 진드기 구제의 적기가 되겠는데 따뜻한 지역이나 날씨가 더워 늦 산란이 가면 11월 초순까지도 봉충이 일부 있게 되므로 봉충이 터져 나오는 시기가 약제 처리 적기가 되겠다.

벌들은 월동식량을 충분히 저장하여 전화 시켜 놓고 나면 벌들 스스로 최대한 출입을 자제 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 봉구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온이 너무 낮아지기 전에 처리 하는 것이 구제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된다. 진드기는 추울수록 벌의 몸 중에서도 배마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한 부위에서 체액을 빨아먹게 되므로 진드기가 겉 표면에 달라붙어 있을 때가 약제 처리의 효과가 높지, 배마디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처리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게 된다.

늦 산란을 하게 되면 10월 말일경 또는 11월 초에도 약간의 봉충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봉충 속에는 진드기가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진드기 약제처리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지만 봉충이 남은 상태에

서 일찍 끝나치면 진드기가 많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필히 벌통에 기록해 놓았다가 재처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봉충이 다 터져 나오자마자 바로 약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리 적기가 되겠다. 약제로는 복만 1 ~ 2호를 분무해주는 방법과 왕스를 넣어주는 방법, 개미산을 혼증하는 방법, 옥살산을 혼증하는 방법, 비넨볼 사용이나 진멸수, 바이바를, 마브리크 사용 등 여러 종류를 쓰고 있는데 바이바를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잘 듣지 않는 다고들 많이 하며 비넨볼도 봉구질 때 쯤 추울 때 해야 바닥에 떨어져 다시 기어 올라붙지 않게 되어 효과를 높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필자가 지난 가을과 봄에 친환경 약제라서 비넨볼 약만 4회 정도 쳐 보았는데 오히려 봄 아까시아 때부터 진드기가 예년보다 많아서 많은 애를 먹었다.

그러므로 비넨볼은 다른 약제와 일부 병행하면서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 약제 처리 효과를 높이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훈연지 종류로 약제처리 할려면 소비 사이를 벌이고 3cm 정도 벌여서 연기 순환이 잘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고 개포위에다 신문지를 한 장 덮고 출입구도 약 30분 정도 막아주어 연기가 벌 몸에 오래 머물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약을 뿌려 줄때는 가급적 분무기가 곱게 나가서 벌 몸에 골고루 충분히 묻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마이탄을 훈연처리 할려면 더운 여름철이 적기가 되게 되며 가을에 기온이 떨어져 맥이 없을 때에는 벌이 많이 죽을 수 있으므로 기온이 낮을 때는 훈연처리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냥 물에 1200:1로 희석하여 분무해 주는 것은 피해가 적게 된다.

3. 가포장 및 그늘막 설치

월동식량이 끝난 다음에는 벌들을 최대한 출입을 적게 하여 관리하는 것이 노쇠를 막아 내년 봄까지 월동 알 수 있는 벌을 많게 관리하는 비결이 되게 된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벌이 충청도나 경기도 지역의 벌보다 월동성적이 떨어지는 주원인은 산란의 중단 시기는 비슷하면서 주로 10월 ~ 12월 사이에 남부지방이 기온이 높아 벌 출입이 많기 때문이다.

대개 여왕벌은 9월 15 ~ 25일 사이에 꿀이 안 들어오면서 비가와 저녁기온이 영상 15 ~ 16℃ 정도로 내려가면서 낮 기온도 23℃ 정도로 떨어지면 산란을 급격히 줄이게 되게 된다. 대개 들깨꽃이 끝난 이후가 이 시기가 되게 된다. 특히 이때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보니 남부지역의 기온도 중부지방과 벌 차이 없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 꽃의 개화기나 산란 중지 시기가 비슷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부지역에 있는 벌이 되었건 충청도 이북 지역에 있는 벌이 되었건 월동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출입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그럴려면 그늘이 지게 관리해 주든가, 스티로폼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 주든가, 그늘로 옮겨서 놓는 방법, 채광망으로 그늘막을 해 주는 방법, 개포를 걸어 주어 시원하게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

이동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스티로폼을 이용해 덮어 주는 것이 좋고 계상일 경우

대개 보온덮개를 위에서부터 뒷쪽으로 내려 덮는데 오히려 반대로 출입구쪽으로 내려서 덮어주면 좋은데 벌 나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정간격으로 전면하단은 약간 띄워서 위와 전면이 덮여 지도록 하면 훨씬 벌통에 복사열이 적게 받아 시원하게 되어 벌 출입이 적어지게 된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덮는 것이 더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계상은 두통 놓고 공간을 한통 정도씩 띄워 놓다보니 벌통 전면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은 이곳을 통해서 빠져 나가고 보온덮개는 햇볕을 가려주는 가리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나 생각된다.

보온 덮개 위에 채광망을 한 겹 더 덮어서 날아가지 않게 해주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되며 보온덮개는 놔두고 채광망만 이러한 방법으로 덮어 주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채광망 값어치는 당년에 뽑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채광망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하단부위와 뚜껑부위에는 적당히 못을 박아 이곳에 잡아 당겨 끼우면 쉽게 설치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전면에 1m 정도 부위에 단상과 계상 따라 0.5 ~ 1m 정도의 높이로 철근 말뚝이나 막대기를 적당한 간격으로 박고 철사줄을 말뚝에 한 번씩 감고 당겨 맨 다음 채광망을 말뚝에 한 번씩 끼워주거나 철사에 붙들어 맨 다음 벌통 뚜껑 뒤편에 못을 박아서 당겨서 이곳에 끼워주어도 벌통 전면이나 위에도 그늘막이 되게 되어 양지에 놓은 벌통은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게 된다.

그늘막 설치한 것은 기온이 낮아지면 출

입구 앞에서 낙봉이 생기게 되므로 날씨가 추워지면 벗겨 주는 것이 좋는데 출입구 입구 땅까지 햇볕이 들면 그냥 놔 두어도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다.

짚이나 스티로폼으로 전면과 뚜껑위에는 일찍 해줄수록 그늘이 되어서 가포장을 해 주는 것이 시원하게 된다.

별통은 주로 남향으로 별을 배치하다보니 햇볕을 받게 되면 전면의 판자가 더워지면서 그 열이 안쪽으로 전달되어 별 출입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게 되므로 이곳에 스티로폼을 대어 주면 낮에 열을 적게 받게 되게 된다.

출입구 바로 위에서부터 띠돌이 밑까지 대어 주면 되겠는데 스티로폼은 별들이 쫓게 되므로 하이폴 또는 우드락이라고 하여 약간 부들부들하는 스티로폼 10mm 정도를 대주면 되겠다.

이때 타카를 가지고 두 군데 정도 박아 고정시키거나 못으로 박거나, 끈으로 묶어 주면 되겠다.

제주도나 남쪽 해안가 너무 따뜻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지역에 높은 산이 있을 경우 이곳으로 높게 이동하여 춥게 월동을 내는 것도 산란이 중지되어 가시 응애도 죽게 되고 월동성적도 출입이 적어져 좋아지게 되므로 이동비 등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아도 충분히 이동하여 월동을 낼 가치도 있다.

저온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는 중복부에 있는 양봉인은 이달 말경 봉충이 다 터져 나온 후 진드기 약제처리를 한 후 별들 스스로 월동 들어갈 채비가 되었을 때 일찍 창고에 넣으면 그늘을 해 준 것 이상의 출입을 막을 수가 있다. 이때 봉충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 죽게 되므로 불과 몇

통만 남아 있다면 있는 소비만 한통으로 몰아서 다 터져 나온 후에 넣든가 아니면 다 터져 나온 후에 별도로 넣어주면 되겠다. 처음 입고 시킬 때는 서리라도 왔다가 기온이 낮아 약간이라도 봉구가 형성될 때 저녁이나 새벽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10℃ 내외로 맞추어서 하루에 1 ~ 2℃ 씩 서서히 내려 주는 것이 별들 스스로 월동 봉구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최적의 월동 적온은 4℃ 내외이므로 군세나 별의 종류 지방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봉구가 적당히 지는 정도로 별소리가 제일 적게 나는 상태가 최적의 상태이므로 4℃에 맞추고 위나 아래로 1 ~ 2℃ 정도 맞추어 시험해보면 내 별에 맞는 적절한 온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이때 습도는 60 ~ 70% 정도로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별통을 옮겨와 놓을 때에는 가급적 충격을 적게 사뿐히 들어다 옮겨 놓는 것이 좋으며 위로는 3단 ~ 4단 정도만 쌓아주고 중간에 스티로폼을 한 장씩 깔아주면 좋다. 더 높게 쌓을 수도 있으나 위아래 온도 차이가 나서 좋지가 않으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나 전기가 나갔을 때 등은 공간이 많아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월동하는동안 출입구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만 놓는 것이 좋고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또한 문제가 있는 별통이 있다면가 벌을 한두 통이라도 겨울에 사자고 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최소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바닥에는 커다란 각목 두 개 정도는 놓고서 그 위에 벌통을 놓으므로 써 통풍이나 바닥으로 부터의 온도 변화를 줄일 수가 있다.

창고 월동이 되었건 노지 월동이 되었건 균세가 비슷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는데 특히 저온 창고 월동에서는 강균과 약균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 월동을 내느냐에 따라 약균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미리 이러한 봉균은 웬이 돌아갈 때 바람이 제일 적게 닿는 부위에 놓는 것이 좋으며 개포위에도 좋이나 그 밖의 보온물로 약간의 보온을 해 주는 것도 좋다.

저온 창고 월동은 추운 겨울에는 냉동기를 돌릴 필요가 없지만 11월 중순까지는 냉동기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고장이 난다든가 전기가 나간다든가 할 수가 있으므로 창고 내에 일정온도 상승이 되었을 때 부저가 울린다든가 불이 들어온다든가 하여 쉽게 눈에 띄게 장치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창고문도 들어갔을 때 안쪽에서 필히 열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만들게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문 밖에 사람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필히 점검해 보아야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안 열리게 되면 얼어 죽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창고 월동시 주의하여야 할 것이 바람이 벌통으로 세계 불지 않도록 웬이 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좋고 닥트시설을 하여 냉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

월동시에는 진동이나 소음을 싫어하므로 냉동기가 있는 곳과 창고가 약간 떨어지는 것도 좋으므로 냉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정

도의 간격으로 약간 떨어지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습도도 중요한데 벌은 생물이니 보너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월동이 잘 나게 된다. 필자가 93년도엔가 처음 과일 저장 창고 신축한 곳에 저온창고를 빌려서 넣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때 경험으로는 냉매가 흐르는 곳에 성애가 달라붙게 되는데 녹는 물도 습기 차지 말라고 전부 밖으로 빼내었는데 공기 순환도 자주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창고 안에는 냉장고 같은 원리이므로 창고 안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 건조해져서 벌의 생리에 맞지 않는 것을 느꼈다.

봉구상태에서 물을 물어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실내가 계속 건조하면 생물인 꿀벌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 바닥에 물을 적당히 뿌려 주었더니 죽어나오는 사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가습기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성애가 녹은 물을 바닥으로 적당히 흘려보내 내부 습도를 적당히 65% 정도로 높이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월동포장전까지 개포를 일부 열어주던가 망사만 덮어주어 촉계 관리하는 것도 벌의 출입을 줄이고 체력 소모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4. 소비교체

월동식량을 다마치고 나면 식량이 많은 벌통도 있고 적은 벌통도 있게 되는데 많은 통 중에서 벌이 감봉되어 축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소비로 식량이 적은 벌통소비와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대개 봉충이 넓게 형성 되었다가 터져 나온 소비와 갓쪽 사양기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는 소비가 대개 식량이 적은 경우가 많게 된다.

또한 화분판쪽과 사양기쪽, 양갓쪽은 식량준 후부터 봉구 형성되는 시기까지 바깥쪽에 있는 식량을 안쪽으로 옮겨오게 되므로 이달 중하순경쯤 봉개가 제일 많고 식량이 많은 소비가 양갓쪽으로 가도록 소비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

봉구가 형성된 다음 소비교체는 벌한테도 리듬이 깨지게 되어 좋지가 않으므로 그 이전 이 달 중에 마치는 것이 좋다.

5. 축소

태어난 벌은 적고 늙어서 죽는 벌은 계속되다 보니 이 달에도 많이 감봉이 이루어지게 된다. 식량 준 후 대개 1매정도 감봉이 되게 되므로 벌 상태를 감안하여 봉구지기 전에 축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최소한도 월동을 나기 위해서는 봉구가 손바닥 하나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부분아사가 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월동시 부분아사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군세가 약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식량소모가 많고 체력 소모가 많아져 봄에 수명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급적 착봉을 강하게 해서 월동을 내는 것이 좋다. 좀 더 봉구를 크게 형성하려고 하면 소비사이를 약간 벌여 주면 벌 무리가 커져서 겨울나는데 체력소모가 적어지고 추위로 인한 낙봉 숫

자도 적어지고 봄에 축소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이 벌이 너무 강하면 숫자가 많아 식량 소비가 많아지므로 식량이 많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벌은 강하게 붙이면 벌이 뒷장으로 일부 넘어가게 되어 얼어 죽을 수가 있으므로 이 달 말경쯤에는 뒷장소비를 전부 빼내 주는 것이 좋다.

6. 밀원수 씨앗 채취

수입개방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품질고급화로 가격차별화 하는 것과 밀원수 식재로 생산성을 높여 가격을 인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밭이 있다면 많이 가꾸어 군단위, 도단위 사업에서 밀원수 지원사업을 따내어 이곳에 납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묘목 재배하는 것도 기술을 요하므로 기술센터나 산림조합 또는 양묘인등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이 달에 채취할 수 있는 밀원수로는 때죽나무, 모감주나무, 쉬나무, 음나무, 개오동나무, 벽오동나무, 개가죽나무, 동백나무, 붉나무, 익모초 등 제일 많은 종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밭이 있는 사람은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양묘를 하고자 할 때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 양토 밭이라야 죽이지 않고 잘 기를 수가 있다.

음나무나 모감주나무, 뱃나무 씨앗은 노천매장이라고 하여 씨앗의 과피를 벗기고 습기가 있는 모래땅에 섞어 놓던가 아니면 양파 자루 같은 곳에 담아서 묻어 두는 것을 말하는데 씨앗이 마르면 발아가 잘 안 되는 종자를 필히 노천 매장을 하여야 한다.